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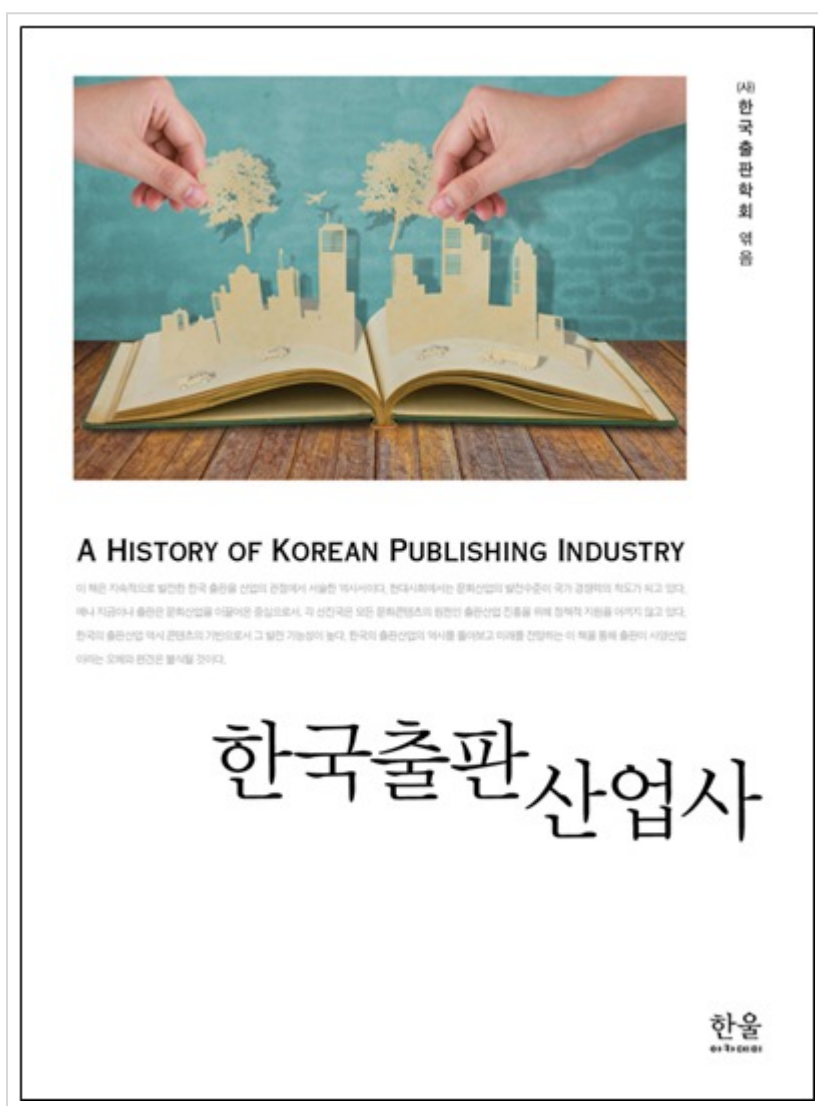


생활/문화 > 책

한국출판산업사, "한국출판산업의 역사를 고찰하다"

[신간] 한국출판산업사. 한울아카데미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3-02-14 08:45 송고



(한울 아카데미) © News1

출판산업은 출판물을 생산하는 문화산업이자 생산자의 전문성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되는 지식 창조산업이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과 콘텐츠를 매개하는 지식 창구산업이기도 하다.

즉, 지식기반경제에서 중요한 지식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유통-이용-재 생산하는 산업이 바로 출판산업인 것이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과 전자책 등의 등장으로 한국 출판계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출판콘텐츠 개발 능력의 부족과 해외 출판물 의존 심화, 외국 출판자본의 한국 진출 등을 겪으며 출판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할 때다.

이 책은 한국 출판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개화기를 시작점으로 지금까지의 한국출판산업의 역사를 살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출판산업의 미래를 제시한다.

이 책의 1장은 한국출판산업사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한국 출판산업의 특징을 설명한다. 제2장은 한국출판산업의 역사를 국가 발전과의 연계 속에서 개관한다. 제3~4장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출판산업의 성과와 특징, 제5~6장은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출판산업을 다룬다. 제7~9장은 1960년대 이후의 출판산업을 생산, 유통, 소비의 관점에서 탐색한다. 제10장은 디지털시대 한국 출판산업의 동향 고찰과 함께 진흥의 방향과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이 책은 출판학 전공 학자 8인이 조사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출판계 원로와 현직 출판 전문가의 대담을 수렴해 집필한 한국 최초의 출판산업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책은 한국 출판산업의 역사와 당면과제를 정리함으로써 출판이 사양산업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출판 산업사'의 지은이는 박몽구 순천향대학교 외래교수를 비롯해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부길만 동원대학교 광고편집과 교수, 신종락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윤세민 경인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문학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이용준 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정춘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명예교수 등이다.

이 책을 엮은 한국출판학회는 1969년 설립됐다. 한국의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이론적 수원지로서 역할하고, 국제 학술교류를 통해 학문적 지평을 넓혀 유익을 구하자는 실용적 이념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출판학 연구'와 '한국출판학회 회보' 등을 발간한 바 있다.

한국출판학회. 3만4000원. 384쪽.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